



Cornell
SC Johnson College of Business



글로벌 혁신지수 2020

누가 혁신에 자금을 댈 것인가?

주요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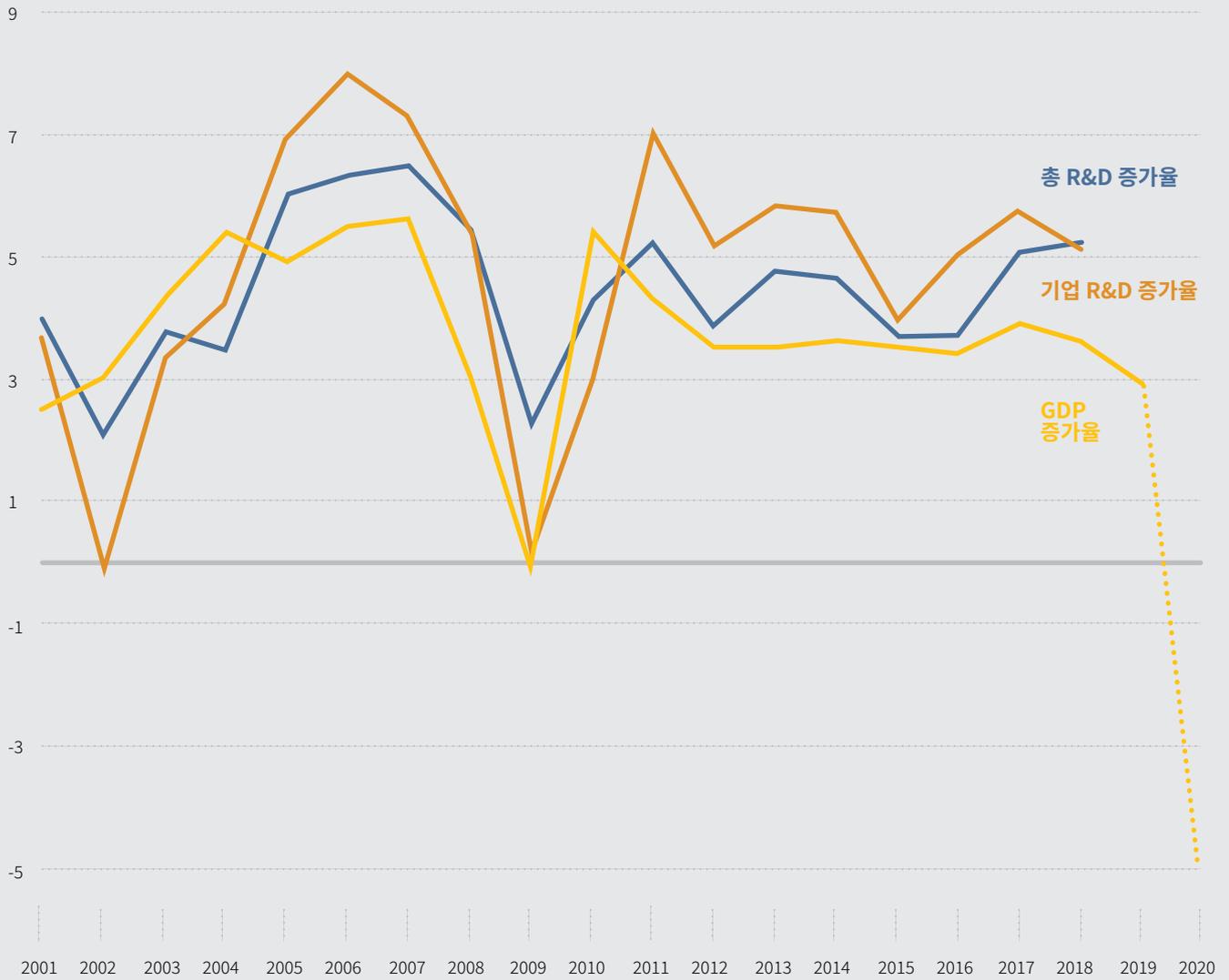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Brazilian National Confederation of Industry
THE FUTURE OF INDUSTRY

그림 A

경기 침체 대비? 순환하는 R&D 투자, 2001-2020



▲ %
▶ 년도

..... GDP 성장 예측

출처: 1장의 그림 1.1

2020년 주요 연구결과

글로벌혁신지수(GII) 2020의 6가지 핵심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는 혁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봉쇄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동안 리더의 행동이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의 섣다운 사태를 촉발시켰다. 2020년 글로벌혁신지수(GII) 보고서가 완성될 시기에 제한조치의 완화는 시작에 불과한 뿐이지만 “제2의 대유행”이 발생할거라는 두려움은 여전하다.

현재의 위기는 혁신이 한창 번창하던 시기에 혁신 지형을 강타했다. 2018년 연구개발(R&D) 지출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반등하면서 세계 GDP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5.2%의 성장을 기록했고, 벤처 캐피털(VC)과 지식재산(IP)의 활용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최근 몇 년간, 혁신을 장려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개발도상국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면서, 선택된 일부 상위권 국가와 클러스터를 넘어서서 혁신의 민주화를 향한 새롭고 유망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벤처 캐피털, 지식재산과 혁신을 육성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동반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A)

이미 혁신이 기업 전략과 국가 경제성장 전략의 중심이 된 만큼, 혁신활동이 예측되는 정도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바램이 있다.

획기적인 기술과 혁신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풍부해지는 추세를 전염병이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회사와 R&D 지출 기관이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지식재산, 혁신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분야의 많은 상위 R&D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의 진행은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또 다른 상위 R&D 지출 주체인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보건 분야 R&D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힘입어 R&D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정에너지”가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통 등 기타 핵심 부문은 변화에 대한 보다 신속한 적응이 필요하다.

게다가 코로나 감염증 위기는 관광, 교육, 소매 등 많은 전통적인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시키고 회사와 개인 차원의 업무방식과 지역 및 세계의 생산방식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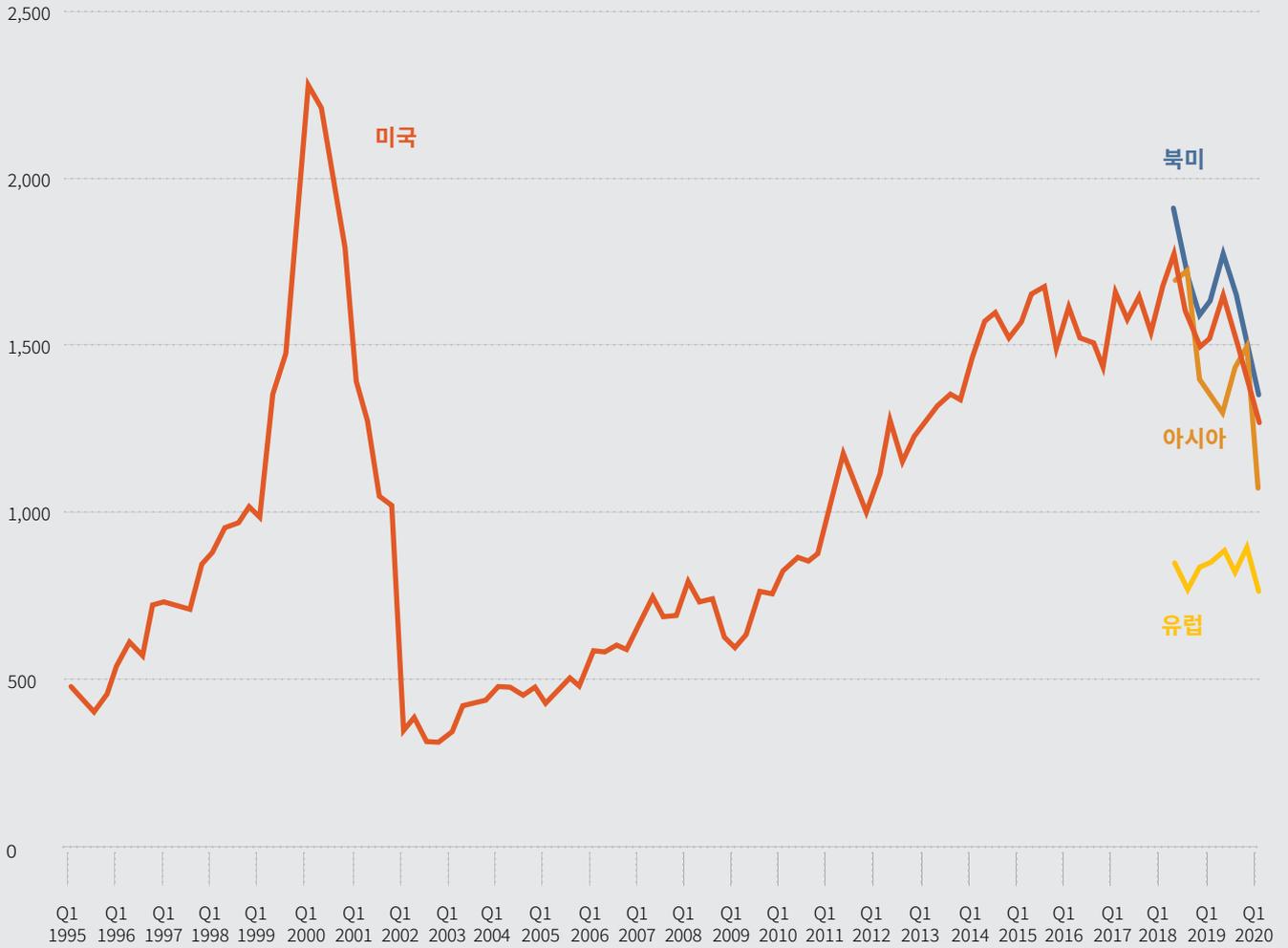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잠재력의 발휘가 필수적이며 혁신에 대한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투자, 협업 모델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코로나 감염증 위기가 혁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계 선두권 경제대국의 정부들은 코로나 봉쇄의 충격을 완화하고 다가오는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구호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경제에 대한 단기적, 중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으로, 예를 들어 대출 보증을 통한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 구호조치가 혁신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스타트업이 비상조치에 접근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그림 B

영향에 대한 대비: 북미, 아시아, 유럽에서의 벤처 캐피털의 감소, 1995년 1사분기-2020년 2사분기



- ▲ 거래건수
- ▶ 년도

출처: 1장의 그림 1.3

더욱이 지금까지 정부는 현재의 경기 부양책에서 혁신과 R&D를 우선 순위로 두지 않았는데, 보건 분야만큼은 그 예외이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찾기 위해 전례 없이 많은 돈을 투입해 왔다. 정부는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책임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건 우선시 정책은 정상적이며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코로나 대유행이 통제되면, 혁신에 대한 지원이 경기순환 경향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혁신 지출이 급감하게 되면 정부는 공공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혁신에 대한 자체 지출을 늘려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 대유행이 과학과 혁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상치 못한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공조, 관공서의 요식행위의 축소 등 과학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연구 프로젝트의 중단과 일부 분야에서 R&D 지출의 감소(불균형) 가능성 등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2: 현재의 위기에 혁신 재원이 감소하지만 희망도 있다.

글로벌혁신지수(GII) 2020의 테마인 “누가 혁신에 자금을 댈 것인가?”의 맥락에서 핵심은 현재의 위기가 스타트업, 벤처 캐피털, 혁신금융의 재원에 대하여 미치게 될 영향이다.

2009년과 다르게 긍정적인 점은 금융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는 것이며, 부정적인 점은 혁신적인 벤처기업에 지원할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B). 벤처 캐피털의 거래는 북미, 아시아, 유럽에서 급감하고 있다. 기업공개(IPO)는 거의 없고, 생존한 스타트업 마저도 기업공개 같은 출구전략이 훼손되면서 수익성이 낮아져서 2020년에는 벤처 캐피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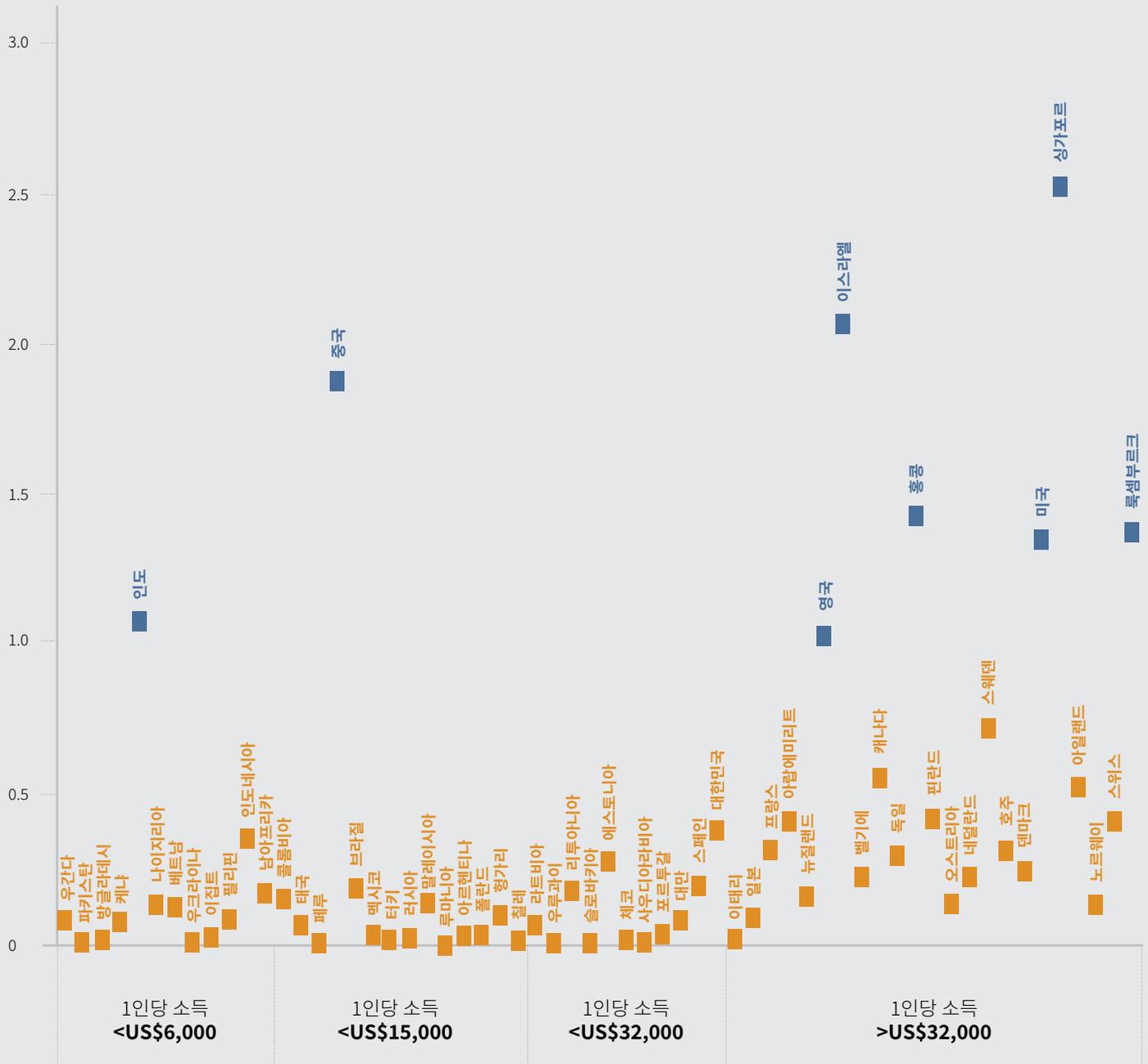
흥미롭게도 이번 위기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시작되었던 벤처 캐피털의 거래만 감소시키고 있다. 작고 다양한 신생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보다 벤처 투자자들은 소위 “메가 거래”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신규 자금을 광범위한 스타트업들에 제공하는 대신 선택된 일부 대기업의 육성에 매달렸다. 이러한 투자와 소위 “유니콘(unicorns)”의 추구는 예상만큼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혁신 금융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R&D 지출보다 벤처 캐피털의 회복이 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혁신 금융 부족의 영향은 일정하지 않을 것이며, 초기 단계의 벤처 캐피털이나 생명과학 같은 분야에서 장기적인 연구 이익을 갖는 R&D 집약적 스타트업과, 인기가 높은 상위 벤처 캐피털 외의 벤처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체감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현재의 벤처 캐피털의 투자는 세계의 몇몇 인기 벤처 캐피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중 소수만이 신흥 국가, 특히 중국과 인도에 있을 뿐이다.(그림 C와 테마섹션에서는 벤처 캐피털의 지리적, 영역적 편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홍콩, 룩셈부르크, 미국, 인도, 영국 등 벤처 투자의 인기가 높은 국가들은 벤처 캐피털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세계적인 자본 수익률에 대한 갈증 때문에 벤처 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올 초에 반 토막이 났던 중국의 벤처 캐피털 거래는 이미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눈 여겨 볼만한 점은 벤처 캐피털과 혁신의 방향이 보건, 온라인 교육,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로봇공학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C

선별된 국가의 벤처 캐피털 진출, 201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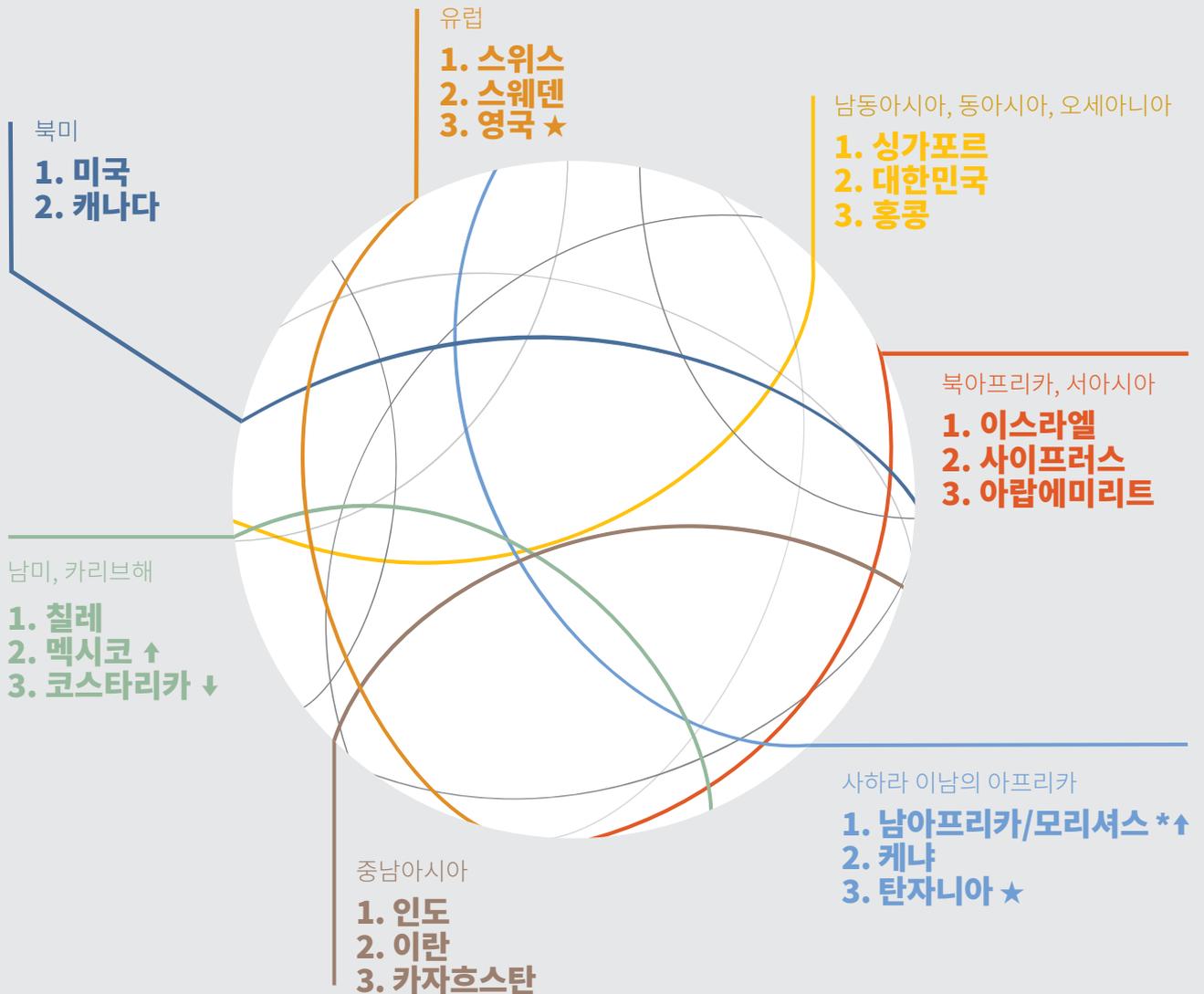
▲ 벤처 캐피털 투자/GDP

출처: 2장의 그림 2.3 및 테마섹션의 그림 T-1.1

2020년 혁신 분야 글로벌 리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는 매년 전 세계 130여 개국의 혁신 성과의 순위를 매긴다.

지역별 상위 3위 혁신국



* 모리셔스는 올해 남아공보다 순위가 높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데이터 변동성이 매우 크다.
↑↑ 2019년 대비 상위 3위 이내 순위 이동을 나타내며, ★ 2020년 상위 3위 이내 신규 진입국을 나타낸다.

소득 그룹별 상위3위 혁신국



소득 그룹별 상위 10위국(순위)

순위 글로벌 혁신지수 2020

상위소득 국가(총 49개국)

1	스위스(1)
2	스웨덴(2)
3	미국(3)
4	영국(4)
5	네덜란드(5)
6	덴마크(6)
7	핀란드(7)
8	싱가포르(8)
9	독일(9)
10	대한민국(10)

순위 글로벌 혁신지수 2020

상위중간소득 국가(총 37개국)

1	중국(14)
2	말레이시아(33)
3	불가리아(37)
4	태국(44)
5	루마니아(46)
6	러시아(47)
7	몬테네그로(49)
8	터키(51)
9	모리셔스(52)
10	세르비아(53)

하위중간소득 국가(총 29개국)

1	베트남(42)
2	우크라이나(45)
3	인도(48)
4	필리핀(50)
5	몽고(58)
6	몰도바(59)
7	튀니지(65)
8	모로코(75)
9	인도네시아(85)
10	케냐(86)

하위소득 국가(총 16개국)

1	탄자니아(88)
2	르완다(91)
3	네팔(95)
4	타지키스탄(109)
5	말라위(111)
6	우간다(114)
7	마다가스카르(115)
8	부르키나파소(118)
9	말리(123)
10	모잠비크(124)

출처 : 1장의 그림 1.2

3: 세계 혁신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이 꾸준히 떠오르고 있다.

올해 글로벌혁신지수 순위가 증명하듯 혁신의 지형이 계속 바뀌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은 글로벌혁신지수 순위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나라들로서, 이들 4개국 모두 현재 상위 50위권 안에 포진하고 있다.

스위스, 스웨덴, 미국이 혁신 순위(1장의 그림 D와 그림 1.5)를 주도하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국가로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국가들은 여전히 대부분 상위소득 국가들이다(표A). 중국이 14위를 차지하면서 중간소득 국가 중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2년 연속 상위 30위권 안에 들었다. 말레이시아(33위)는 중간소득 국가 중에서 두 번째 순위의 혁신적인 국가이다. 인도(48위)와 필리핀(50위)은 처음으로 상위 5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인도는 하위중간소득 국가들 중 3위를 차지하여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그림D). 필리핀은 2014년에 역대 최고의 순위를 달성하였고 올해도 100위를 기록했다. 2014년 71위를 차지했던 베트남은 2년 연속 42위를 차지했다. 하위소득 국가 그룹에서 인도네시아(85위)는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탄자니아(88위)는 하위소득 국가 그룹에서 1위이다(그림D).

4: 개발도상국의 눈부신 혁신 성과

글로벌혁신지수의 최상위 순위 이외에, 일부 최고의 혁신 성과가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는 등 혁신 성과는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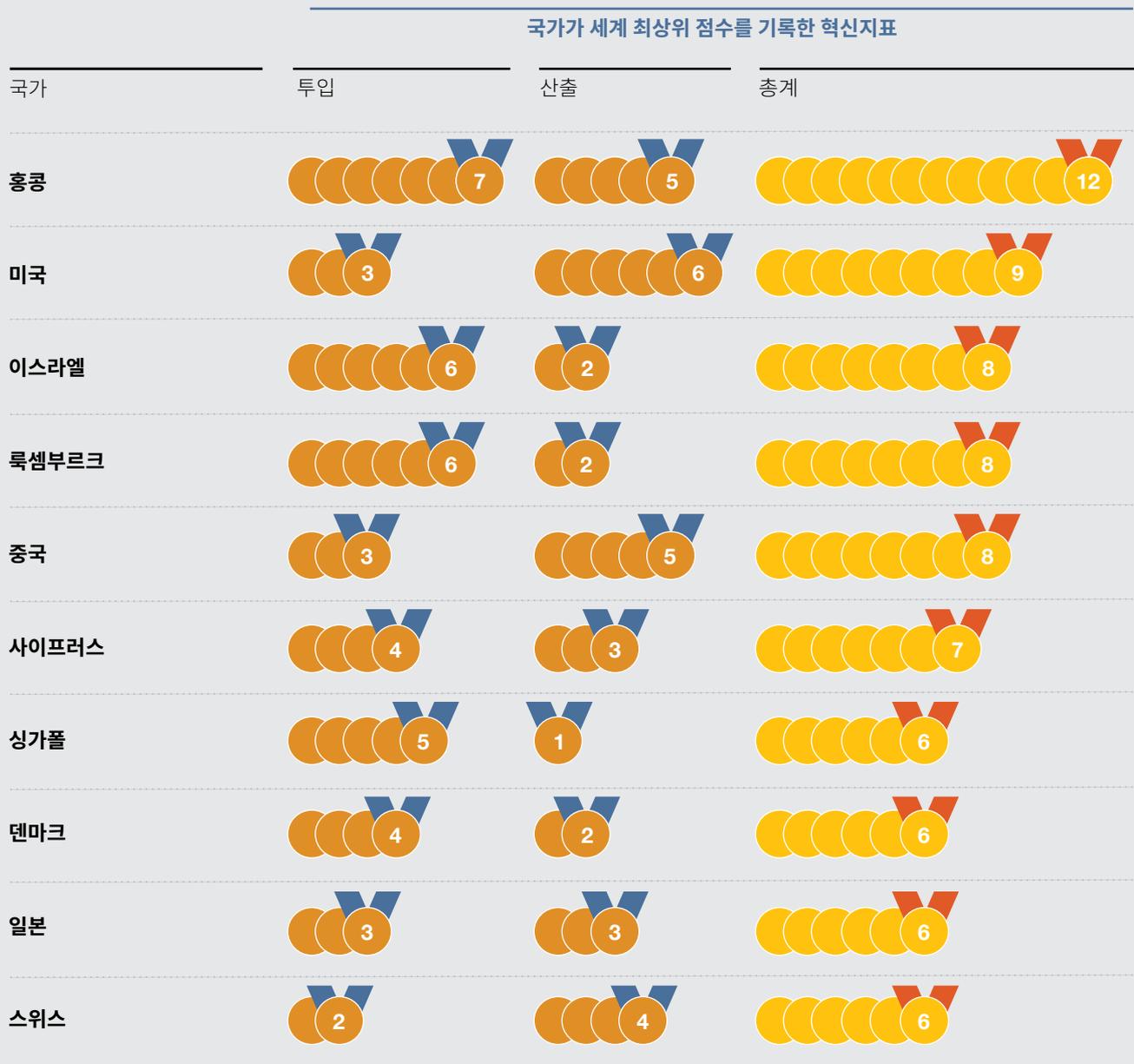
첫째, 글로벌혁신지수 2020은 벤처 캐피탈, R&D, 기업가 정신 또는 첨단 기술 생산과 같은 특정 분야의 글로벌혁신지수에서 어느 나라가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홍콩과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중국이 공동 3위, 사이프러스가 4위, 싱가포르, 덴마크, 일본, 스위스가 공동 5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E).

선별된 혁신지표 중 일부 상위권은 상위소득 국가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기업 R&D 부문 1위이며, 말레이시아는 첨단산업 순수출 1위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가 교육비 지출 세계 1위이며, 모잠비크가 투자에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멕시코는 창의적 상품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둘째, 글로벌혁신지수 2020은 글로벌혁신지수 국가들 사이에서 혁신 시스템의 균형을 평가한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12개 국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1장의 표1.1). 상위 35위권 안에 들어있지만 뒤처지는 분야가 있는 나라들도 많다. 예를 들면, 호주,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는 지식 및 기술 생산량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며, 이스라엘과 중국은 인프라 부문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상위권 외의 여러 나라들이 특정 혁신분야에 뛰어난 경우로, 예를 들어, 인도는 다른 혁신 분야에 비해 지식 및 기술의 산출물과 시장 고도화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혁신지수 버블 차트”는 경제 발전 수준에 비례하는 혁신 성과를 식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1장의 표B와 그림 1.6). 지역적으로 아프리카는 이 숫자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25개국 중에서 8개국이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다. 인도, 케냐, 몰도바, 베트남 등이 10년 연속 혁신 달성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장의 표1.3).

2020년 가장 높은 순위의 GII 지표를 갖는 GII 국가



출처: 글로벌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코넬대, INSEAD, WIPO, 2020
 비교: GII 방법론에 따르면 여러 국가가 하나의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부록 II 및 부록 IV 참조

2020년 소득수준에 따른 혁신성과

	상위소득그룹	상위중간소득그룹	하위중간소득그룹	하위소득그룹	
발전수준 대비 기대치 이상의 성과	스위스	중국	베트남	말라위	
	스웨덴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르완다	
	미국	남아프리카	인도	탄자니아	
	영국	조지아	필리핀	니제르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덴마크	태국	몽고	모잠비크	
	핀란드	세르비아	튀니지	네팔	
	싱가포르	자메이카	케냐	부르키나파소	
	독일	코스타리카	모로코	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불가리아	키르기스스탄	우간다	
	홍콩	몬테네그로	세네갈	토고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리	
	이스라엘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이디오피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짐바브웨	기니	
	일본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베냉	
	캐나다	멕시코	온두라스	에덴	
	발전수준과 유사한 성과	룩셈부르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보 베르데	
		오스트리아	이란	캄보디아	
		노르웨이	페루	코트디부아르	
아이슬랜드		알바니아	파키스탄		
벨기에		벨라루스	가나		
호주		모리셔스	이집트		
체코		루마니아	카메룬		
에스토니아		레바논	볼리비아		
뉴질랜드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포르투갈		아제르바이잔	잠비아		
이태리		터키	나이지리아		
사이프러스		아르헨티나	라오스		
스페인		파라과이	미얀마		
몰타		러시아			
라트비아		스리랑카			
헝가리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나미비아			
크로아티아		보츠와나			
폴란드		도미니카			
그리스		알제리			
기타 국가		칠레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우루과이			
		아랍에미리트			
		파나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브루나이 다루살람				
	투리니다드 토바고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출처 : 글로벌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코넬대, INSEAD, WIPO, 2020

5: 지역적인 분열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상당한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혁신 "따라잡기"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혁신 성과에 관한 지역적인 분열이 존재한다. 북미와 유럽이 앞서고,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이 뒤를 이으며,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뒤쳐져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계속해서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1장의 그림1.12). 이 지역은 R&D와 혁신에 대한 투자가 낮고 지식재산의 활용이 초보적인 수준이며 R&D와 혁신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민간의 협력이 부족하다. 낮은 혁신 투입을 가진 지역의 경우 성과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만이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브라질만이 국가별 특허 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대륙은 대륙 전체를 걸쳐 가장 이질적인 혁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그림F). 일부 국가들은 상위 75위(예: 남아프리카, 튀니지, 모로코)에 들어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훨씬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혁신 시스템은 대체로 낮은 수준의 과학기술 활동,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와 해외 기부자에의 높은 의존도, 제한된 과학과 산업의 연계, 기업의 낮은 흡수 능력, 지식재산의 제한된 사용,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광범위한 지역적 일반화에 불과하며, 이 지역 내 일부 국가들은 상당한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일례로, 아프리카의 교육비 부문의 대표적인 혁신 리더는 보츠와나, 튀니지이며, 연구개발 부문은 남아프리카, 케냐, 이집트이다. 벤처 캐피털 거래와 같은 강력한 재정적 시장지표에서는 남아프리카가 우위를 차지하며, 기술 도입의 개방성 및 지식의 내부 유동, 연구 기반의 향상도 측면에서는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가 뛰어나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적극적 활용, 조직 모델의 창출에 있어서는 케냐가 혁신 리더이며, 지식재산 제도의 활발한 이용은 튀니지, 모로코가 앞서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존 혁신 데이터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으로 혁신이 보다 널리 퍼져 있다.

6: 혁신은 일부 상위소득 국가와 중국의 과학기술 클러스터 수준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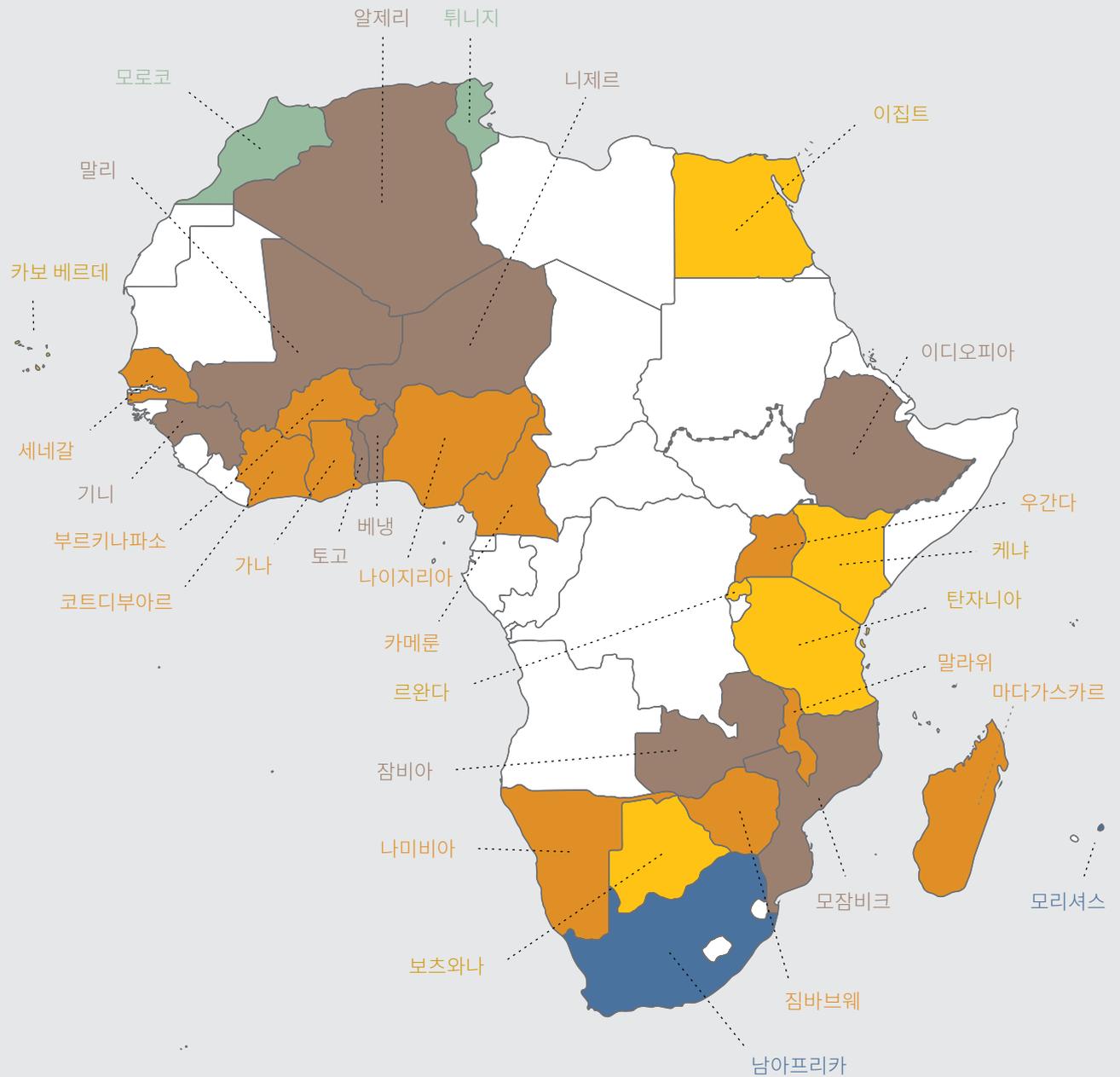
글로벌 과학기술(S&T) 클러스터 순위에도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 섹션: 클러스터 순위)

상위 100위 클러스터는 26개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6개국, 즉 브라질, 중국, 인도, 이란, 터키, 러시아는 중간소득국가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가장 많은 클러스터(25개)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17개), 독일(10개), 일본(5개) 순이다.

2020년에는 도쿄-요코하마가 다시 1위 클러스터를 차지하고, 그 뒤를 선전-홍콩-광저우, 서울, 베이징, 산호세-샌프란시스코(표C)가 잇고 있다.

글로벌혁신지수 2020은 특허와 과학 출판물 점유율을 인구조나 합계를 의미하는 과학기술(S&T) 집약도에 따른 상위 100위 클러스터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기준을 통해 보면, 유럽과 미국의 많은 클러스터들은 아시아 클러스터들보다 보다 집약된 과학기술(S&T) 활동을 보여준다. 영국의 캠브리지와 옥스포드는 가장 집약적인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고 아인트호벤(네델란드)과 산호세-샌프란시스코(미국)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0 순위



- 상위 60위
- 상위 80위
- 상위 100위
- 상위 120위
- 상위 130위
- 미포함

출처: 1장의 그림 1.11

2020년 국가별 또는 국경 초월 지역의 상위 과학기술(S&T) 클러스터

GII 클러스터 순위	클러스터 명	국가	2019-2020 GII 순위변동
1	도쿄-요코하마	JP	0
2	선전-홍콩-광저우	CN/HK	0
3	서울	KR	0
4	베이징	CN	0
5	산호세-샌프란시스코	US	0
10	파리	FR	-1
15	런던	GB	0
18	암스테르담-로테르담	NL	0
19	퀸	DE	1
24	텔아비브-예루살렘	IL	-1
27	타이페이-신주	TW	16
28	싱가폴	SG	0
32	모스크바	RU	1
33	스톡홀름	SE	-1
34	아인트호벤	BE/NL	-3
35	멜버른	AU	0
39	토론토	CA	0
41	브뤼셀	BE	-1
43	테헤란	IR	3
45	마드리드	ES	-3
48	밀라노	IT	0
49	취리히	CH/DE	1
51	이스탄불	TR	3
54	코펜하겐	DK	1
60	벵갈루루	IN	5
61	상파울로	BR	-2
68	헬싱키	FI	0
70	비엔나	AT	-1
89	로잔	CH/FR	-3
95	바젤	CH/DE/FR	-4
99	바르샤바	PL	1

출처 : WIPO 통계 데이터베이스, 2020년 3월

결론

결론적으로, 글로벌혁신지수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증진한다. 글로벌혁신지수의 목적은 혁신에 대한 통찰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정보에 입각하여 혁신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20년 글로벌혁신지수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혁신 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현 위기 상황에서 특히 혁신 금융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방주의와 민족주의의 증가에 직면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로벌혁신지수의 순위를 상승시킨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의 가치 사슬과 혁신 네트워크의 통합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혁신에 대한 국제적 개방성과 협력에도 진정한 위험은 존재한다. 하지만,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전염병 상황 하에 의학적인 해결책을 찾는 공동연구는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협업의 속도와 효율성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R&D의 사명이 고립주의의 증가 추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글로벌혁신지수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면밀히 추적하여 혁신에 대한 향상된 이해와 측정을 촉진함으로써 정책가와 기업 리더를 향한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